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3호 [루체 제25612호] 주제 106 (2017)년 4월 13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강하 및 대상물 타격경기대회 - 2017》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강하 및 대상물타격경기대회 - 2017》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훈련장에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 육군상장 리영길동지, 조선인민군 제830대연합부대 부대장 육군소장 김영복동지, 정치위원 육군소장 유원호동지, 조선인민군 해군사령관 육군상장 김명식동지, 정치위원 해군중장 허영춘동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항공군상장 김광혁동지, 정치위원 항공군상장 손철주동지가 맞이하시였다.

경기대회는 특수작전부대들과 경수송기부대들의 협동지휘실현 및 적후방침투, 대상물타격, 전투정확속에서의 실탄사격, 타격대들의 비행대호출 및 목표지시에 의한 무장직송기전대타격능력을 확정함으로써 일단 유사시 어떤 특수작전임무도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작전전투계획의 현실적가능성을 완성하고 전투행동조법을 더욱 숙연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경기대회에는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 조선인민군 제830대연합부대 제2625군부대관하



5지대 4타격대, 조선인민군 해군 제252군부대관하 1지대 2타격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323군부대관하 1지대 1타격대의 전투원들과 항공 및 반항공군의 경수송기, 무장직송기전대들이 참가하였다.

경기대회는 순차에 따라 경수송기에서 무하된 전투원들이 대상물들에 대한 습격, 파괴를 진행한 다음 화력호출을 받은 무장직송기전대들이 증강하는 《적》들을 가상의 원목표에 화력타격을 들어대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경기대회참가자들의 심장은 전진하는 사회주의조선의 전군길을 감히 막아보려고 발광적인 침략전쟁연습소동을 미친듯이

벌리며 최후발악하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이 땅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켜진다면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백두산의 폭풍같이, 백두산의 번개같이 단숨에 달려나가 침략의 무리들과 그 본거지들을 모조리 축항쳐버리고 통일된 백두산대국의 새 아침을 총대로 안아오고야말 원주격멸의 의지로 세차게 눈부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김시소에서 경기대회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경기를 시작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경수송기들이 초저공으로 훈련장 상공에 날아들고 전투원들이 우박처럼 쏟아져내렸다.

서슬푸른 칼날이 되어 원수들의 심장을 무자비하게 도려낼 멸적의 각오로 가슴 불태우며 훈련하고 또 훈련해온 전투원들은 지정된 강하지점들에 날새마냥 착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투원들이 초저공강하를 정말 잘한다고, 담대한 배짱들이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타격대지휘관들과 경수송기전대 비행사들이 협동하여 투히점과 고도, 탈출시기를 바로 정하였다고, 적대상물에 대한 정찰자료를 놓고 연구를 깊이한것이 알린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타격대들의 화력호출을 받고 편이어 날아와 《적》들에게 명중탄불소나기를 퍼붓는 무장직송기들의 공습전투행동도 볼만 하다고, 땅에서는 복수의 불이 흐르고 하늘에서는 정벌의 번개가 내리치고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강하 및 대상물 타격경기대회 - 2017》을 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기대회는 우리 인민군대는 결코 가만 있지 않을 것이며 우리 식의 성전, 우리 식의 보복타격으로 맞받아나갈 놀음을 단숨에, 단때에, 단방에 가져들이 죽탕쳐 버리고 분별없이 날뛰는 침략자들에게 전폭총대맛, 전폭전경맛을 토틀리 보여 주고야말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적필승의 전투적위력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오늘 경기대회를 통하여 우리의 미더운 전투원들은 백두산초량이의 발흥으로 온 남녘 땅을 거머쥐고 적들의 금소마다에 번개처럼 비수를 들이박을수 있는 진짜배기

싸움군들로, 전투비행사들은 일수의 본거지를 송두리채 뒤집어버릴수 있는 용감무쌍한 붉은 매들로 역세게 준비되었음을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하시면서 경기대회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5돐을 맞이하고있는 뜻깊은 시기에 성과적으로 진행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강하 및 대상물타격경기대회-2017》은 인민군장병들이 자라개나 조국통일을 생각하며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싸움준비현상을 위해 훈련과 로고를 바쳐온 우리 수령님께 드리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충정의 선물이

라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최근 인민군대에서 당의 훈련혁명 5대방침을 높이 받들고 전례없는 발빠른속도로 훈련을 세차게 일어나고있다고 하시면서 특히 한가지 훈련을 하면서도 여러가지 훈련목적을 달성할수 있게 하는 훈련의 다각화를 중요하게 틀어쥐고나가고있는것은 아주 좋은 훈련기풍이라고, 오늘 경기대회가 이것을 실증해주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잘 훈련된 병사만이 싸움마당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울수 있으며 결전의 하루를 위해 훈련의 격달, 친남을 따와 함께 이어가는 군인의 참된 애국자이라고 하시면서 군인들은 항상

전쟁의 날에 마음을 얹어두고 훈련으로 새날을 맞고 지는해를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격전 전야의 침예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의 모든 사업이 철두철미 전투정치 훈련에 지향되고 부동되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장병들은 훈련이자 군대이고 일백가지 군사과업중에서도 훈련이 첫번째라는것을 명심하고 훈련을 생활화, 습성화, 제철화하여 그 어떤 전투임무도 지립적으로 능숙히 수행할수 있는 일당백 싸움꾼, 적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백두산호랑이들로 역세게 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경기

대회에서 1등을 점취한 조선인민군 제 525군부대지속 특수작전대대에 쌍인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경기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인민군지휘성원들과 경기대회참가자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전투에서 지휘하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몹소 경기대회를 지도해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믿음과 배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훈련지, 화약내서린 훈련장마다에서 훈련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켜올림으로써 수행결사옹위의 총대, 조국수호의 총알을 더욱 역세게 버려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양절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12일 무관단 단장인 로만 오스발도 히메네스 오르메가 무바공회국대사관 무관이 인민무력상인 북군대장 박영식동지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말이 써여져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양절에 즈음하여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말이 써여져

있었다. 또한 이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명예부리사장을 세출군이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본사기자

김일성청년영예상, 김일성소년영예상 수여식 진행

민족최대의 평일인 대양절에 즈음하여 김일성청년영예상, 김일성소년영예상이 모범적인 초급청년동맹위원회들과 청년동맹일군들, 청년동맹원들, 소년단원들에게 수여되었다. 수여식이 12일 청년동맹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청년운동사상과 병도업적용을 옹호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청년동맹조직을 선군청년전위대로로 본본의 뿌리였으며 조국보위와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위훈을 떨친 15개의 초급청년동맹위원회들과 33명의 청년동맹일군, 동맹원들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이 수여되었다.

또한 백두산철새위인들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적극 따라배워 지적재능 겸비한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 기동감으로 훈련이 준비하기 위하여 학습과 소년단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과 좋은일하기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99명의 소년단원들이 김일성소년영예상을 수여받았다. 수여식에서는 결의문들이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 경축행사대표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 경축행사대표들이 12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은 대표들은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병도, 특출한 정치신력과 고매한 혁명력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영구불멸한 업적을 쌓아 올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끝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그들은 주체의 사회주의조선이 영원히 승리만을 떨칠수 있는 만년기쁨, 인민이 세상에서 무덤없는 행복찬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제일강국건설의 륜본한 토대를 마련해주시길 세 위인들의 영광찬란한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되새겨 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림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대양절 경축행사대표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업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대양절 경축행사대표들이 12일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력사의 초평기를 헤쳐서며 불멸의 당과 국가, 군대를 건설하시였으며 이 땅위에 이인위원의 숭고한 리념이 꽃피어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고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대양영성의 언덕에 올랐다.

진제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선세만세 높이 받들며 모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를 총정다해 받들어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 강국념을 만드신 빛나는 헌신로 꽃피워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전당, 전군, 전민이 당의 명도따라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총동원력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머지않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을 맞이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력은 만고불상을 다 격하시키고 사회주의의 특유적인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 땅에 세상이 가장 우월하고 위대한 주체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 전설적위업의 역사이다. 자주를 존엄하고 선군으로 강대하게 꾸민 우리 조국을 사회주의의 성스러운 땅으로 건설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넋은 영원히 이땅에 살아계실 것이다.

뜻깊은 태양절이 다가오고있는 지금 온 나라 천만근민은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을 불패의 사회주의국가로, 《세상에 부림없이》라는 노래소리가 새세대를 울려 퍼지는 인민의 낙원으로 건설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장 송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개척자, 사회주의조선의 지도자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사회주의의 길은 우리 인민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길이이며 그 어떤 힘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고 없앨 수 없는 영원불변의 길이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위업은 수령의 명도명령에서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완성되어간다. 사회주의가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이익을 반영한 우월한 사회라고 하여도 수령의 올바른 명도를 받지 못한 바, 사회주의가 온갖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력사는 수령이 위대하여야 할 것은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으며 그 정당성과 정당성을 시대에서 높이 받들게 된다는 질리를 가르쳐주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 새로운 나라들에서 피압박근로대중의 혁명적전진성이 강화되고 민족해방투쟁, 프로레타리아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졌다. 로시에서는 10월혁명이 승리하고 지구상에 첫 사회주의국가를 출현한것으로 하여 전세계로통째로 공과 온야들의 투쟁기세는 더욱 고조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 시기 독립운동의 기운이 높아졌다. 하지만 수령의 명도를 받지 못한 탓에 모든 반일투쟁은 일제의 아비적인 폭압에 부딪히기만 했으며 온 겨레는 갈갈 붙라 정처없이 방황하지 않았던 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시으로써 비로소 민족주의의 강령에 담긴 시기에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이 빛나게 개척되게 되었다. 김일성 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였고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수령, 혁명의 대인물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C. I.》를 결성하신것은 세계계국들의 대중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조선혁명의 장엄한 출발을 선언한 력사적사건이요 또한 수령 수위성에 걸리는 수령님의 혁명명도는 20세기 사회주의정치사에 유례없는 업적으로 수놓아져있다. 조선혁명의 간조성과 복잡성으로부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진도상에 튼튼한 의욕을 심어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의 개척자로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을 맞으며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 만경대 방문 경축 행사에 참가할 대표들 평양 도착

민족해방의 정신스러운 태양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혁명의 수도 평양은 크나큰 격정과 원기로 끓어번져있고있다.

그날의 일금마디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업적은 또 민족의 희대의 현유를 높이 모시며 새기를 이어 빛나고있으며 만경대의 현류, 백두의 현류를 뜻없이 이어나가는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영원히 승수승구하며서서히 확신시켜오고있다.

만경대현류와 백두의 현류를 기념하여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은 사자를 썼다.

전체 방문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천심만배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사회주의의 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사명을 받들어 혁명의 지휘선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갈 의의에 넘쳐있다.

민족해방의 정신스러운 태양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혁명의 수도 평양은 크나큰 격정과 원기로 끓어번져있고있다.

그날의 일금마디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업적은 또 민족의 희대의 현유를 높이 모시며 새기를 이어 빛나고있으며 만경대의 현류, 백두의 현류를 뜻없이 이어나가는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영원히 승수승구하며서서히 확신시켜오고있다.

만경대현류와 백두의 현류를 기념하여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은 사자를 썼다.

전체 방문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천심만배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사회주의의 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사명을 받들어 혁명의 지휘선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갈 의의에 넘쳐있다.

뜻깊은 태양절을 위대한 당의 무리 함께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뜻깊은 태양절을 위대한 당의 무리 함께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뜻깊은 태양절을 위대한 당의 무리 함께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뜻깊은 태양절을 위대한 당의 무리 함께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뜻깊은 태양절을 위대한 당의 무리 함께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뜻깊은 태양절을 위대한 당의 무리 함께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뜻깊은 태양절을 위대한 당의 무리 함께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뜻깊은 태양절을 위대한 당의 무리 함께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뜻깊은 태양절을 위대한 당의 무리 함께 사회주의의 위업을 이끄시니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원 불멸하다.



【조선중앙통신】

